

# 오늘의 반공간적 현실의 의미

이은봉

덕성여대 교수 · 철학

책은 정보의 저장소이다. 옛날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일부 왕족이나 귀족들이 정보를 독점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어떤 시대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정보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부인을 지칭하여 '전주댁' 이니 '안동댁' 이니 하고 부른 적이 있었다. 그 부인의 출신 지역, 즉 공간적인 출생 지역을 가지고 이름을 대신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 사회로 변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빨라지고 자연히 '전주댁' 이니 '안동댁' 이니 하는 지칭도 사라졌다.

어떤 지역과 그 사람을 일치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사회의 이동을 더욱 빠르게 하고 눈부신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전화, 그리고 곧 뒤이어 팩스와 같은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부터이다. 일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전화와 같은 문명의 이기는 점점 그 위력을 잃어 가고 있다.

컴퓨터가 전화와 팩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전화와 팩스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아직도 동일시할 수 있는 위치(identifiable locations)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가령 나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의 전자 메일인 경우 불확정적 장소(indeterminate locations)에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 내가 전자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내가 등록해 놓은 e-mail에 접속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보낸 것인지 사무실에서 보낸 것인지 외국에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의 현재의 주소나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알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메시지를 그의 통신망 ID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연결 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상관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PC통신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체국이라는 정부기구, 농경사회를 벗어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우체국 제도는 오래지 않아 인류역사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의 전달속도와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여 정보의 내용도 달라지는가? 그 정보를 수용하는 인간의 질도 달라지는가? 정보나 문자는 정신을 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초점	2	일제에 빼앗긴 삶을 고발한다 친일문제 연구서 · 증언집 등 발간
기획취재	4	하반기 출판에 '유럽' 바람 불 듯 유럽 역사 · 철학 · 문학 소개 많아... 국내 저술은 빈약
출판화제	6	독특한 주제로 읽는 인류역사
	8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기획물 활발
	9	인문학의 두터운 쟁론 이끌 계간지들
	10	인간의 '몸'을 탐구한다
주제가 있는 책읽기	12	세기말에 다시 읽는 아방가르드 예술론 - 조선령 입문서에서 학술적 엄밀성 갖춘 책까지 다양
책갈피 산책	13	엘리 마오 《무한, 그리고 그 너머》를 읽고 - 허민
신간 읽기	14	헨리 페트로스키 《연필》
종합서평	15	추억과 헛것 사이 - 손경목 이제하 · 한승원 · 윤후명의 작품을 읽고
나의 학문과 책읽기	16	냄새나는 한적(漢籍)과 함께한 세월 - 임동석
자료	17	'97 우수학술도서 선정도서 목록
논문초	18	한국출판의 언론적 기능과 시대적 역할 - 조상호
인터넷 출판향해	19	책의 정글 '아마존' 탐험기 - 김영신
출판계 소모임	20	출판계 막후 전위부대 '서울편집인클럽'
책의 풍경을 찾아서	21	'우리 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자료실
포럼	22	"제2의 재고도서 유통시스템 갖춰야" - 한기호 한국출판연구소 주최 제8회 출판포럼
서평	24	차장섭 《조선 후기 벌벌연구》 - 남지대
		강명관 《조선 후기 여행문학연구》 - 고미숙
	26	홍기삼 《항기설화문학》 - 김학성
		이익섭 외 《한국의 언어》 - 강신항
	28	민경배 《한국교회찬송가사》 - 유정우
		정대현 《맞음의 철학》 - 황희숙
	29	쿨터만 《예술이론의 역사》 - 조요한
	28	박준규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 정병헌
		최협 외 《인류학과 지역연구》 - 황달기
이 책 그 사람	30	《말과 음악, 그리고 그 숲결》 펄먼 서우석 교수 《나, 내일 데모 간데이》 펄먼 혜진 스님
	31	《역사와 만나는 문학기행》 펄먼 최재봉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⑮